

동맥경화증 發病因子 규명

金

辰

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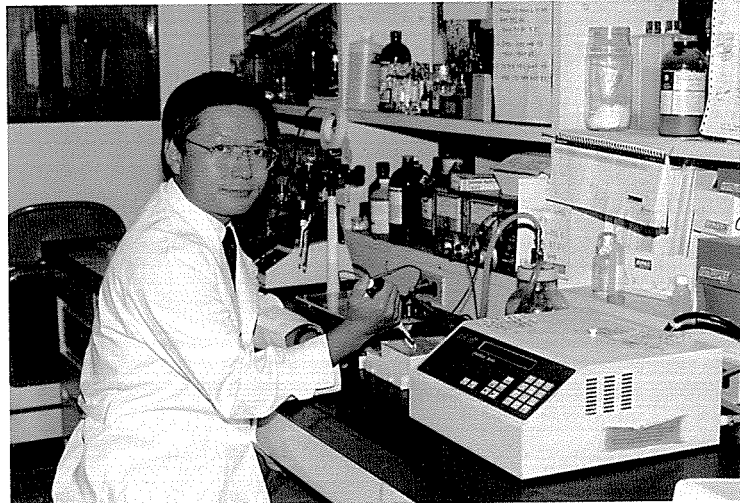
〈서울의대임상병리과학교실/임상화학〉

동맥경화의 유전가능성

여름휴가의 절정을 이루는 8월초, 한가한 서울 도심과는 달리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서울대병원 본관 임상병리과학교실을 찾아 金辰圭교수(42)를 만났다.

『저에게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적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며 먼저 이달의 과학자로 선정된 소감을 밝힌다.

金교수가 연구발표한 「동맥경화증의 발병인자로서 죽상경화특이지단백, Lp(a)에 관한 연구」 논문은 영국 왕립임상화학회지인 「Annals of Clinical Biochemistry」(933)에 게재되어 세계 여러 지질관련학회로부터 우수논문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임상화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기도했다. 또한 올해 5월에 과총에서 수여한 제3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논문에 대해 金교수에게 설명을 부탁했다. 『이 논문은 동맥경화발생에 있어서 종래의 지질성분과는 달리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지단백인 Lp(a)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



◇金교수가 연구실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실험 중에 포켓을 쥐었다.

인자로서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규명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성인사망률중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병이 점차 증가일로에 있는 동맥경화증의 병인연구와 진단에 조그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金교수는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Lp(a)지단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경쟁적 효소면역 측정법을 개발했는데, 이 측정법은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들에 비해 진단적 특이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을 위해 동맥경화 예방에 관한 도움말을 金교수에게 부탁했다. 『심근

경색증이나 심근동맥경화, 특히 직계가 족중에 45세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의 병력이 있으면 동맥경화의 발병률이 높은 편이죠.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 구토 등이 있는 사람은 꼭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철학과 문학에서 의술로

임상화학을 전공하고 동맥경화의 분자생물학 및 지질대사의 분자유전학분야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金교수는 경남 합천 출생으로 마산고등학교 시절 사경을 헤메던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쾌차하는 모습을 보고 의술의 힘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철학과 문학에 관심이 깊었던 金교수는 마음을 바꿔 의술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굳혀 서울대의대를 진학, 의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얘기해 준다.

관련 연구소 설립이 희망

『제가 金相仁교수님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에 金교수님의 배려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임상화학 디플롬과정을 수료했죠. 이후 서울대에서 전공의 수료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임강사,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교수와 미국 신시내티대학 객원교수를 거친 金교수는 현재 1백3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6개학회 회원이고 세계임상화학연맹의 학술위원, 세계임상화학분야의 우수한 학술지와 기관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임상화학학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대한임상화학회(87) 창설멤버이며, 이 분야 최초의 국내교과서인 「임상화학」(88)을 출간했고 주요일간지나 의학전문지에 의학 및 건강컬럼을 기고하고 있다

앞으로 동맥경화 발병, 진단, 치료에 관련된 Lp(a)지단백 이외에도 아포지단백 B, E, A-IV, LDL수용체 등에 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金교수는 여건이 주어지면 대학내에 「동맥경화 및 지질대사연구소」를 설립해 관심있는 후배들의 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밝힌다.

양질의 의료장비 강조

金교수는 평소 생각해 오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먼저 우리나라 임상검사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일반진료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특수진료



◇「동맥경화 및 지질대사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밝히는 金辰圭교수.

면에서는 기술과 장비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질 좋은 검사장비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있지 않고 검사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관에 따라 다른 진단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임상검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각급 의료기관의 검사장비 확충과 임상검사 정보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국내의료기제조업을 육성하여 표준화된 양질의 국산의료장비 보급이 필요합니다. 시장성이 낮은 국내 여건으로는 개발장려금, 세제혜택 등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수준의 향상 뿐 아니라 국익신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 金교수는 의학계뿐만 아닌 과학기술계 후배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두가지가 있다고 한다. 『세계의 석학들과 견주어 동등한 학술적 업적을 생산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견실한 실험기법의 연마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영어를 읽고 쓰고 잘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최신연구를 따라 잡기 위하여는 연구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부인은 소설가로 활약

운동을 좋아하는 金교수는 서울대병원 야구팀 부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원강좌가 있는 수요일 저녁 대학로에서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토론하는 것이 취미라고 알려준다. 가톨릭 신자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를 신념으로 살아간다는 金교수(영세명:유스티노)는 「안개의 덩어리」이란 소설로 東仁문학상(90년)을 수상한 소설가 金香淑(42)씨 사이에 아들 준형(구정고2년)과 딸 정은(신구중2년)을 두고 있다. <도수길>